

경관 연구를 위한 실천적 연구도구로서의 ‘이야기’와 ‘이야기맵핑’

- “이야기맵핑을 통한 서울 북촌의 일상경관 읽기” 박사논문 중 연구방법론 부분을 중심으로 -

서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 공간잇기 지역사람이야기 연구소 대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은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이자, 매일 변화하는 일상의 공간이다. 경관을 동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지층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최근 경관연구의 흐름이다. 하지만, 경관을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산물이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현상의 집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경관연구에서 이야기는 중요하다. 이야기는 장소의 물리적 생성과 소멸 등에 대한 인간의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비물리적 매개체이다. 또한, 이야기맵핑은 장소와 관련된 개인들의 이야기를 데이터로서 분류하여 공간, 시간, 사람 간의 관계성을 평면적 지도 위에 구현한 시각적 결과물이다. 개인의 기억이 모인 집합기억을 시각화하는 이야기맵핑은 이야기가 있는 경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며, 이야기맵핑을 통한 연구방법은 장소와 장소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실천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맵핑

2.1 환경계획 및 설계 도구로서의 맵핑 연구

환경의 계획 및 설계를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맵핑은 공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콘텐츠를 시각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다. 맵핑은 다양한 이슈를 지리적 공간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여러 행위나 행태를 주로 다루는 조경학, 도시계획학 및 건축학 등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예술 전반에서 맵핑과 관련, 다양한 논의와 이론적 탐색이 진행되어(조경진, 2006)’ 왔다. 지도(map)¹⁾는 탐구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한 완성된 결과물로서 제작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를 담고 있는 평면적 매체다. 지도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뜨렷하게’ 가시적으로 만들어주며(Hart and Hamsy, 2020) 시·공간적 복잡성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수단이다. 지도는 사람들의 기억, 개인적 여정, 행적 등에 대한 기록이며, ‘사람들의 기억을 간직하는 매체(Caquard and Cartwright, 2014)다. 맵핑(mapping)²⁾은 동사(verb)형으로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행위와 과정을 의미한다. 맵핑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이자 비가시적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깨닫게 하는 것(Corner, 1999: 심지수와 배정환, 2019)이다. 맵핑은 장소를 기반으로 행위 중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조경진, 2006) 장소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슈의 생생한 경험을 환기하기 위해 활용할 수(Powell, 2012) 있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서 맵핑은 물리적 공간 속 다양한 비가시적 행위 혹은 형태가 갖는 역동적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과정형 결과물이다.

2.2 실천적 연구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맵핑

최근의 맵핑 연구에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한 비물리적 서사를 활용한 ‘이야기맵핑(story mapping)’에 대한 고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추세다. 지도는 장소를 생동감 있고 잘 구현된 것으로 재현하기 위해 서사(narrative)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이야기의 시·공간 구조와 장소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Caquard and Cartwright, 2014)되기도 한다. 맵핑은 장소를 기반으로 장소의 서사를 가장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연구방법이자, 장소와 장소 간의 시·공간적 연결망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 지향적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예시로, 대상지의 범위를 도시 단위로 선정하여 서울 도시 만들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도시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층적 기억의 집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현된 이야기맵핑인 “이야기지도 2019, Story Map of Seoul 2019(서준원, 2019b)³⁾가 있다. 이 연구는 지도가 결과로서의 중요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1) 지도는 지리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지리적 현상이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여 구체적 위치(location) 기반의 의미 체계를 만들어 물리적 위치를 인간적인 장소(place)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장소 내의 관계(relationship within place)(잔중환 외, 2020)에 대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2) 맵핑은 가시적인 세계와 사회적 관계 혹은 비가시적 세계를 연결하는 개념적인 것(Abrams and Hall, 2006)으로서, 개념의 시각화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재원, 2011)이다.
3) “이야기지도 2019, Story Map of Seoul 2019” 작품은 연구자가 우란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한 연구전시 ‘우란이상: 스트리스케이프 2019’ 연구전시를 통해 연구자와 방문객이 함께 구현한 이야기맵핑이다. 연구자의 연구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사공간적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성한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상호소통의 매체이자,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맵핑을 실현한 연구다. 해당 작품은 연구전시 기간 중 전시장의

기억의 집합이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결과물이며, 이야기테이터의 지속적 수집을 통한 이야기맵핑의 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시이다. 본 연구는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과정적 도구이자,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어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조경진, 2006)인 기존의 맵핑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소의 서사적 특성을 드러내어 일상경관을 다층적으로 읽어내기 위하여 실천적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맵핑을 구현하였다.

3. 현상학 기반의 경관 연구

3.1 '이야기'로서의 경관 연구

평범한 생활환경 속 반복되는 매일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의 역사 즉, '일상사(history of everyday life)'가 된다. 일상사 연구⁴⁾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역사 속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은 반복된 고난 속에서 일궈낸 일상의 역사이며, '역사 속의 일상들(historische Alltage)'이라고 뒤트케는 정의하였다. 일상이란 "반복"을 통해서 "일상의 사유와 행위가 실용적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참여자들이 일상의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인 상황을 의미한다(뒤트케 외: 나중석 외, 1989, 2002: 20-21). 뒤트케는 일상사란 거시적 역사의 소용돌이 속 배척되어왔던 개인들의 미시적 일상사인 '자신들의 역사'를 연구의 주제로 부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개인들은 지역사회와 장소와의 관계의 외부가 아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행위를 만들어낸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내부자 개개인의 평범한 '이야기들'의 집합은 미시적 일상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며, 거시적인 역사는 마을의 미시 생활사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억에 기반을 둔 일상사뿐만 아니라 도시와 사회의 역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거시사 차원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개인의 일상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가능해진다. 한 사회의 기억은 개별 기억들의 느슨한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 기억(collected memories)'이라고 했다⁵⁾.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기억을 수집해야만 사회가 속한 지역의 집합 기억을 구성해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기억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야기'를 통한 전달이 거의 유일하다.

리코르(Ricoeur)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자, 거듭되는 삶의 변화과정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란 삶 자체의 이야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삶을 살리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공간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무용, 2022)이 될 수 있다. 장소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며, 서사를 통해서만이 일상의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다(Fischer-Nebmaier, 2015, 33). 장소의 '이야기'란 거주민들이 평범한 일상 장소에 부여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자 일상의 서사다. 일상의 장소는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사가 기록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커뮤니티 디자인어 아마자키 료(2014)는 "연구자의 일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의 핵심은 인간 경험의 기억에 대한 현상학적 기록이다. 기억은 유한하지만, 이야기로 드러내어 기록되는 순간 무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역사가 된다. 일상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는 것은 가시적인 현상 너머의 비가시적 서사를 찾아낼 수 있는 주된 방법의 하나다. 또한, 무의미하던 일상의 이야기는 이야기테이터로서 사회적·공간적 가치를 재발견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관(landscape)은 인간 개개인 또는 집단이 각자의 삶의 차원에서 접해온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지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 한편, 현상학(phenomenology)적 연구⁷⁾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으로 간주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에서 최대한

제일 중앙부에 설치하여 연구자와 방문객들이 함께 완성한 '과정형 이야기맵핑'이다. 연구자는 서울의 지명을 활용한 서울 지도를 대형 벽면에 구현하고 연구전시의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살아온 배경과 시간, 방문자의 애착 장소 등을 기준으로 설문작업을 한 후, 방문객 스스로 지명지도 위에 자신이 살아온 시간순으로 장소에 압정을 찢어 붙여 표시하고, 그 점들을 본인의 나잇대를 나타내는 지정된 특정 색상의 실로써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완성하였다.

- 4) 일상사는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미셸 마페졸리, 앙리 르페브르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2021)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일상연구라고 할 수 있다.
- 5) 프랑스의 사학자 노라(Pierre Nora)는 그의 저서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emoire)"를 통해 기억의 장소는 기억하려는 의지 때문에 기억된다고 했다. 또한, 노라의 연구와 결을 같이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브박스(Maurice Halbwachs)는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ies)'이라는 개념 정립을 통해 개인의 기억은 소속 집단이라는 맥락 및 사회적 구성의 틀을 떠나서는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다(Halbwachs, 1992; 한지은, 2016: 420에서 재인용). 이 두 사회학자의 연구는 기억을 집단의 틀로 해석하려고 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받았고, 개인적 기억의 중요성을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Fentress and Wickham, 1992; Olick, 2007; 한지은, 2016: 420-421에서 재인용). 집단 기억의 핵심은 다양한 개개인의 기억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 등 '개인 간의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지은(2016)은 개인적 기억은 시간적 문제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기억의 중심에는 '장소'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 기억을 수집하는 '집합 기억(collected memories)'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관련 연구는 기억을 단일한 집단의 기억으로 보는 것이 아닌 공식 기억(official memory), 대항 기억(counter memory), 공적 기억(public memory), 사적 기억(private memory), 토착 기억(vernacular memory), 또는 민속 기억(folk memory)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했다(Fentress and Wickham, 1992; 한지은, 앞의 책 p. 420-423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제4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복춘 주민 개개인의 주관적 기억은 집합 기억의 형태 중 '사적 기억'임과 동시에 '토착 기억', 혹은 '민속 기억'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다.
- 6) '이야기(story)'는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로써, '서사', '내러티브(narrative)' 혹은 '텍스트(text)'로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실, 현상 등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하는 말이나 글(표준국어대사전, 2022)'을 전달하는 표현방법이다. 즉, 이야기 자체는 독립된 성격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반영하는 콘텍스트로서 줄거리를 갖출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이야기는 어떤 현상이나 기억에 대해서 특정한 관점을 갖고 서술하는 것인데, 이는 이야기하는 화자의 의식세계, 이야기의 의도,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의미까지도 전달하는 것이다.
- 7)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무수한 경험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경험하는 실재에 대한 인식 또는 행위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관계 속에서 '상식적'으로 형성해왔다(최종렬 외, 2018: 79).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일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서 바라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 일상의 실재를 연구자와 연구 참여

벗어나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이다(유기웅 외, 2019: 139). 이 두 가지 개념을 인간 경험의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지리적 환경에서 얻는 지식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로부터 얻은 직접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Van Paasse, 1957: 21; Relph, 1976: 4)은 현상학 연구를 경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조경학 및 도시계획학 뿐만 아니라, 지리·역사·인류학 등의 인문학적 연구 분야에서도 인간과 공간과의 상호연계성 등에 대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다. 한 지역의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을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이들이 지역의 경관과 그 안에서 영위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3.2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경관 연구

3.2.1 이야기데이터 수집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조경학 및 도시계획학 관점의 장소 및 경관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지리학의 실천으로서의 경관 연구와 인류학 및 사회학의 현상학적 참여관찰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이야기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세부적으로 ‘만나다’, ‘바라보다’, ‘찾다’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만나다’ 단계는 장별 세부연구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탐구의 과정을 의미한다. 연구의 계획, 연구 범위 선정,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로서, 각 장은 ‘공간’, ‘사람’, 그리고 ‘시간’을 차별로 만난다. ‘바라보다’ 단계는 인류학의 민족지적 연구방법 중 현장연구 기반의 질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3.2.2 이야기맵핑 구현

두 번째 단계는 ‘기록하다’로서, 이야기맵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지리학의 경관 읽기 방법 중 ‘해체하기’ 방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데이터를 구분하며, 조경학, 지리학 및 디자인학 등을 응용하여 이야기데이터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독창적 이야기맵핑을 기획하고 구현한다. 이야기맵핑을 구현하는 과정은 이야기데이터를 텍스트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이야기의 자원화 과정이다. 경관을 ‘해체(deconstruction)한다’라는 것은 현상 자체를 분리하거나 소멸시킨다는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관념적 경관을 새롭게 조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종한 외, 2020: 243-244). 경관은 인간의 활동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삶의 방식을 해석하기 위하여 거꾸로 추적하여 단서를 포착한다면 경관을 해체해 나갈 수 있다(전종한 외, 앞의 책: 339). 본 단계에서는 수집된 이야기를 자원화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한 후, 이야기맵핑으로서 구현한다.

3.2.3 일상경관 읽기

마지막, 세 번째는 ‘읽다’ 단계다. ‘일상경관을 읽는다는 것’은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앞서 밝혀왔으며, 경관을 읽는다는 것은 곧 경관을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해석’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최종렬 외, 앞의 책: 82)이다⁸⁾. 경관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경관이 갖는 가시적 특성 너머의 비가시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경관은 문화의 단서로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사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정만, 2004)이자 이야기 자원이다.

4. 결론

사람은 공간 속에서 유기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공간에 사회적·문화적 기억을 매 순간 새긴다. 개개인의 장소기억은 장소 고유의 시간성과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경관이 된다. 경관은 이야기로서 전달되어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기록될 수 있으며, 그 기록은 다시 다른 이의 관점에 의해 새롭게 읽힐 수 있다. 무의미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장소의 기억을 수집하고, 특정한 맥락으로 범주화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은 경관 연구의 핵심이다. 경관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이며,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일상장소의 집합이다. 일상의 장소를 경험한 개개인이 각기 다른 주관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장소에 부여하고, 그러한 다층적 일상 장소를 저마다의 관점을 통한 이야기로서 연결해내는 것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경관’, 즉 ‘이야기경관(storyscape)’이다.

본 연구는 경관 연구를 위한 실천적 연구 도구로서의 ‘이야기’와 ‘이야기맵핑’ 연구방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데이터의 수집을 시작으로 두 번째 이야기맵핑의 구현, 그리고 일상경관 읽기 등의 세 단계다⁹⁾. 이것은 ‘이야기가 있는

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한다(최종렬 외, 앞의 책: 32).

8) 하이데거는 현상학과 해석학을 분리하지 않고 불렀는데, 언어학, 기호학, 글쓰기 등 여러 분야를 접목하여 연구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했다. 사회와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의 일상을 해석하는 것은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다. 20세기 초 딜타이는 ‘설명’은 자연과학의 영역이고, ‘이해’ 또는 ‘해석’은 정신과학의 영역이라고 구분했다(최종렬 외, 앞의 책: 82-83).

9) 본 연구는 크게 조경학과 지리학 기반의 실천적 연구방법을 근간으로, 인류학의 현상학적 방법 이론을 접목한 연구의 순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류학의 연구 방법론은 무스타카스(Mustakas), 지오르지(Giorgi), 콜레지(Colaizzi) 등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사한 방법론을 발표한 학자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스타카스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총 일곱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 목록 작성, 환원과 제거, 주제화, 확증, 조직적 기술, 구조적 기술, 조직적 구조적 기술 등이다(크레스웰, 2005: 79, 269, 279-282; 강진숙, 2016: 286-291; 최종렬 외, 앞의 책: 80-81). 비슷한 연구 논리를 펼쳤던 지오르지와 콜레지는 각 4단계와 6단계의 연구방법을 제안했다(최종렬 외, 앞의 책: 81).

일상경관' 즉, '이야기경관'을 연구하기 위한 과정 그 자체다. 본 연구는 향후 환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며, 지역의 교육 및 관광과 홍보, 문화와 예술 연계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이야기 이카이빙 및 지역 브랜드 활성화 등 도시, 공간, 장소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공간잇기, 철원군청(2021) 시간을 품은지도, 신철원 편 ver.02 개정판: 신철원 70년 두런두런 이야기지도, 서울: 공간잇기 지역사람이야기 연구소.
2. 권윤구, 주신하(2016) 인사동 문화지구의 장소성 해석. 휴양 및 경관연구 10(4): 15-27.
3. 김도은, 김성환, 최성우, 손용훈, 조경진(2022) 공원 수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시민 과학 기반 Mapbox 온라인 지도 시각화 및 활용 연구: 서울숲 공원의 수종별 수목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5(4): 49-65.
4. 김지나, 조경진, 권병준(2019) 교통도 사운드스케이프의 특성과 재현. 한국조경학회지 47(1): 57-75.
5. 박재민, 김무한(2014) 장소기억을 통한 문화경관의 층위 해석: 형용사를 사용하여. 한국조경학회지 42(2): 10-18.
6. 서준원 (2014) 공간잇기: 계동 100년, 시간을 품은 지도, 서울: 알음비움.
7. 서준원(2019a) 우란이상: 이야기지도 Story Map of Seoul 2019. 서울: 우란문화재단.
8. 서준원(2019b) 우란이상: 스토리스케이프 STORYSCAPE 연구전시 리플렛. 서울: 우란문화재단.
9. 서준원(2020) 공간잇기: 숨겨진 시간의 이야기. 환경과 조경 lak 384: 108-115.
10. 서준원(2021) 마을 이야기: '마을 기억지도'를 통한 지역 정체성 찾기. 나비스(NABIS) 뉴스레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온라인 소식지 커버스토리, 2021-12호. <https://www.nabis.go.kr/coverStoryDetailView.do?me>.
11. 송효상, 배형민, 최원준 (공)윝김 (2009) 『地文=Landscape』. 파주: 열화당.
12. 심지수, 배정환(2019) 조정 계획과 설계의 시각화 매체로서 맵핑. 한국경관학회지 11(2): 70-84.
13. 양유선, 손용훈(2019) 덕수궁 돌담길의 역사문화가로 장소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7(3): 60-70.
1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증판. 서울: 박영스토리.
15. 유현준(2018)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주)유문화사.
16. 이무용(2022) 『문화로 도시를 경영하라: 창조적 도시문화경영과 장소 만들기』.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17. 이용숙, 이수정, 정진용, 한경우, 황익주(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주)일조각.
18. 이재원(2011) 맵핑: 개념의 시각화로서의 지도 연구. 디자인학연구 97(24), 4: 363-376.
19. 이정만(2004) 『경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박삼욱 외 16인. 개정판. 서울: 한울 아카데미. pp. 337-366.
20. 전종한(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
21. 전종한(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22. 전종한,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2020) 『인문지리학의 시선』. 개정3판 4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3. 조경진(2001) 종로의 경관읽기. 서울학 연구총서 13: 267-294.
24. 조경진(2006) 환경설계 방법으로서의 맵핑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1(2): 71-84.
25. 진종현(2013) 지리학의 경관관념과 경관연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을 중심으로. 국가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의 가치와 역할: 대한지리학회 한국조경학회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pp. 39-54.
26. 최종렬, 김성경, 김귀옥, 김은정(2018) 『문화사회학의 관점으로 본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2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저,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박승규 (2013), 5장: 정체성, 인간이 공간에 새긴 흔적을 설명하다. 서울: 푸른길. pp. 120-151.
2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저,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한지은 (2013), 14장: 장소 기억의 정치. 서울: 푸른길. pp. 418-448.
29. Alf Ludtke. Alltagsgeschichte 저, 이동기 외 역(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30.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New York. 유강은 역(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31. Relph, E.(1976) The Placeness and Placelessness, 김택현, 심승희, 김현주 역(2005).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학술.
32. Tuan, Yi-Fu, Space and Place(1979)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2011) 도서출판 대운. pp. 1-328.